

# 與 “친일몰이·역사팔이 그만”...野 “광복절이 친일 부활절”

### 국힘 “야당이 갈등과 분열 조장...광복절을 반쪽짜리 만들어” 민주 “역사 쿠데타 저지 TF 구성...범국민적 저항운동 전개”

여야는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친일 논란’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친일몰이’, ‘역사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공격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쁜 날인 오늘까지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생정신이 되새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하나 돼 기뻐할 날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좌파들은 우파 정권에 대해 끊임없는 친일몰이를 해왔고, 시작은 늘 이승만 정권이 친일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변역이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

기는 광복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민주당의 억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919년 3·1 운동부터 여러 독립운동이 있었고,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등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건립의 과정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당내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복회 등이 주관한 경축식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주최 경축사에서 ‘반자유·반통일 세력’을 언급한 데 대해 “아직도 통치 이념을 잘못 된 이념에만 국한해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 임명에 대해 애국 보수단체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

열 정권은 친일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광복절 79주년까지 ‘친일 부활절’로 만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위해 광복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제 말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왕초 말정’”이라고 규정하고,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기관 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 윤 대통령 8·15 경축사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

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고려인마을서 ‘봉오동 전투’ 재현...전남,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행사

### 제 79주년 광복절 행사 다채 광주 시민단체·전남도의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촉구

제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는 일본군을 격퇴한 흥병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재현을 포함한 ‘고려인, 나는 대한국인(大韓國人)이다’라는 보훈문화제가 열렸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독립군이 봉오동으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 당시 흥병도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었다. 전남도는 ‘20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14일 목포 근대역사관 일원에서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뉴라이트 인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석 제13대 독립기념관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일제강점기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김 관장은 김구 선생을 좌파라고 비난하는 극우적 태도로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며 송고한 정신으로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광복회와 25개 독립운동가 단체가 일제히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부 여당과 김 관장은 파렴치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김 관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끌고려워하는 민간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을 피한 경축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통령은 ‘자유’만 50차례 강조했다. ‘독립’은 3회에 그치고 ‘항일’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은채 역사세탁을 원하는 일본의 소원을 완벽히 들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복절 행사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존경을 보내야 하는데, 그 의미나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의 경축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 : 379,363,600원 (구 101.5평)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상담문의 · 010-6648-0725